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3.70원 하락한 1,143.2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네고물량 유입에 전 거래일 대비 3.70원 하락한 1,143.2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147.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회피 분위기 속 1,140원대 후반에서 출발하였다. 오후에는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역외 달러 매도와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3.70원 하락한 1,143.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085.48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47.00	1147.00	1141.90	1143.20	1144.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91.32	1091.32	1084.33	1085.6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7.03	1347.72	1336.05	1338.2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7	-0.51	-1.85	-4.28
	결제환율(수입)	0.22	0.5	0.41	-0.1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유럽 내 코로나19 재유행 공포에... 1,14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43.20원) 대비 2.00원 오른 1,145.3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유럽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급증이 2차 전염병 유행 공포를 자극하면서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훼손되어 상승이 예상된다. 프랑스는 파리 등 주요 도시에 통행금지를 도입하는 등 제한적 봉쇄조치를 강화했다.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적인 비상조치를 언급했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만3천 명 증가한 89만8천 명을 기록하면서 3주 만에 다시 늘어난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재정부양책 협상으로 인해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의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매도 물량과 중국 인민은행의 간접 제재에도 강세를 보이는 위안화에 환율 상승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41.67 ~ 1149.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4.2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00원 ↑
	■ 美 다우지수 : 28494.2, -19.8p(-0.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5.2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3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